

강진 도룡마을 하멜과 함께 부활

국내·외 예술가 한달간 머물며 마을 전체를 작품으로…명소 탄생

'하멜표류기'의 저자인 헨드릭 하멜(Hamel Hendrik)이 8년간(1656~1663년) 머물렀던 강진군 병영면 도룡마을에서 347년만에 하멜이 부활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하멜의 고국인 네덜란드를 포함해 7개국 예술가 13인이 참여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347년만의 재회-뉴 하멜표류기' 마을 전시 오프닝 행사가 지난 21일 도룡마을에서 열렸다.

'애프터 하멜 파티(After Hamel Party)'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시작한 농촌마을 '문화이모작' 사업의 최종 성과물이다.

문화이모작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를 통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주민참여형 문화기획 프로그램으로 도룡마을에서는 '하멜과 돌담'이라는 테마에 맞춰 예술가들의 작업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스토리·사진작가, 영화감독 등 국내·외 예술가들은 마을에서 한달간 머물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왔다.

가수가 꿈이었다는 할아버지가 주인공으로 주민들이 총출동하는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어느 할머니의 애환을 담아 25분짜리 독립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목수와 미술작가들은 마을 분위기를 활용하게 바꿨다. 색이 벗겨져 지저분하던 대문에 페인트와 예쁜 그림으로 새 옷을 입혔고 빼곡히 거리던 나무 대문도 목수들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시멘트로 뒤덮인 마을회관 주변은 다



'하멜 부활 프로젝트'에 참가한 외국 작가들이 강진 도룡마을에서 깨진 청자를 활용해 모자이크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강진군 제공>

양한 디자인의 나무 평상과 의자들이 체워져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변했다.

도룡마을 주민들도 무너진 돌담을 수리해야 한다며 의기 투합했다.

오래전 돌담을 세웠던 할아버지들은 동이 트자마자 마을회관에 모여 어둑해 질 때까지 땀을 흘렸다.

마을 곳곳에는 동·서양의 얼굴을 형상화한 철제작품과 하멜의 한국생활을 영화처럼 표현한 벽화 작품, 깨진 청자조각을 이용한 모자이크 작품 등도 설치됐다.

작가들은 마을에 설치한 작품들을 모두 기증하기로 해 도룡마을이 하멜의 발자취를 느껴보려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날 치는 작가들과 주민들이 그 동안의 성과를 자축하고, 오랜 기간 마을에 머물렀던 작가들을 떠나보내는 서운함을 담은 행사다"며 "하멜의 흔적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즐기면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지원부서 축소·관광사업은 강화

장성군 조직개편…신규 행정수요 능동 대처

장성군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민선 5기 조직개편을 마련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관광부서와 사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등 지원부서의 유사한 기능은 통합 및 이관한 반면 6급 담당이 핵심 업무를 직접 기안하고 추진하는 다문화가정담당, 상가활성화담당, 임대사업담당 등 실무형 8개 담당을 신설한 점이다.

또한 전국 제일의 조립 성공지인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산림 병해충을 막아라"

해남군 '민간 컨설팅제' 도입

10월초까지 현장답사

해남군은 학교 숲, 도시공원 등 생활권 주변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산림 병해충을 막기 위해 '민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구 운동화와 외래종 증가로 산림 병해충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심 녹지대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진단과 처방이 목적이다.

군 관계자는 "수종별 병해충의 발생 주기와 수목 환경조건 등을 파악해 종합적인 진단과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 및 처방 등을 담은 '수목 피해 진단서'를 대상지 관리기관에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인 10월 초까지 학교 숲과 소공원 등 157개소에 대해 현장답사를 통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상지 외에도 진단을 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종별 병해충의 발생 주기와 수목 환경조건 등을 파악해 종합적인 진단과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 및 처방 등을 담은 '수목 피해 진단서'를 대상지 관리기관에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 이상
입주률 80%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 할인금액 6천만

▣ 주변 소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지 상승 기대 최근 대림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친환경을 받고 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탑공인증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FAX) 223-1772, 훈 011-602-2532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시공 초월한 강과 사람의 만남'

전남도 오늘부터 일주일간 생태하천 사진전

전국 최초로 전변자류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전남도가 미래 하천사업의 방향 모색을 위해 생태하천 사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시공을 초월한 강과 사람의 만남'이란 주제로 23일부터 29일까지 도청 윤선도홀에서 생태하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도내 66개소 하천을 경관 등이 우수해 정비가 불필요한

'보전지구', 인간과 자연자연으로 훼손돼 '복원된 지구', 사람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친수지구' 등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된다. 또 하천의 수난, 하천 주여, 생명하천, 미래하천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선보이는 등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전시회로 펼쳐진다.

그동안 전남도는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저류지 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81억원



의 사업비로 21개소의 전변자류지 조성사업을 추진, 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현재의 하천사업 성과들을 한데 모아 조망함으로써 미래 하천사업의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시 "LH 4개 사업 차질없다"

용해·대성지구 등 3000억대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

주민 우려 진화나서

등 4개 사업으로 약 3000억원 규모다.

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용해동 일대 33만8000㎡의 부지에 835억원을 투입해 지반개량공사와 국민임대주택 7동이 건립된다.

또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이미 420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해 보상대 462건 중 415건(90%)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오는 10월 철거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LH공사가 목포시에 추진하는 사업은 용해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대성지구 공동주택사업, 백련마을 택지개발사업, 옛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장 31층 쌍둥이 주상 복합빌딩은 최근 기공식을 가졌다.

이들 사업은 정주 유동인구 증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돼 중단시 지역민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내에서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정종득 시장이 LH공사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4개 지구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공한지가 꽃동산으로...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은 최근 도심 속 꽃꽂이거리인 공한지를 꽃동산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쉼터와 포토존으로 애용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영암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영암군은 지역 상권과 유동자금 외 부유출을 억제하고자 발행하는 '영암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 1일부터 3%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상품권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를 비롯한 회원농협 등에서 1인 1일 50만원 한도 내에서 3% 할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군이 3만원권 고액상품권 발행과 당첨금 이상 간부 공무원 1가맹점 지정 운동을 펼쳐 가맹점을 570여 개로 늘려 상품권 사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영암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44억 원 어치를 발행, 32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 이상 책임보장
1억 직접투자 시
년 1000만원 이상 소득기능

경·공매 컨설팅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업 계획 작성
전국·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회전자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 가능)

■ 3.3㎡당 매매가
- 10만 원

■ 공동 복합 APT 주택 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 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삼무병원 건너
삼성회전자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권 방향지구
- ※ 10층 신축건물로 코너

실태 T.062)226-3377
설정 FAX.226-3399
(광주시 남구 문화체육회관 건너 플러스부동산)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벌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려겠습니다.

☎ (FAX) 223-1772, 훈 011-602-2532
(광주시청 신분당, 대인동 소재지 진관점)

광천동 e-편한세상

<h